

계단과 계단사이 2

몸살로

기우뚱 하다가 나를 내려놓는다는
것이 그만 털썩 주저앉았다

몰랐다

까담모를 몸살이 왜 왔는지
하루를 잠 속에 폭 빠졌어도 몰랐다
내 속에서 여러 편의 문장들이 흔들리고
잠잠히 들어찬 그 소리가
이렇듯 날개를 퍼덕이고 있음을 몰랐다
뚜벅 뚜벅 올라가는 저 뒷모습이
아니, 오르고 싶은 내 욕망이
한데 뒤엉켜 가고 있음을
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서는 오선지의 음표처럼
고음을 내고 싶은 것이었음을 몰랐다
차라리
다 내려놓을까
그러면 사뭇 편해질까
행간 속에서 꿈지락 거리는 손가락
톡 톡 튕기듯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면
불쑥 불쑥 터지는 그 끼에
몸이 푸욱 꺼질 때마다 몸살이 온다
내 몸 속 어디쯤 정말 길이였을까
올랐다 싶으면 또 푹 떼어내
실컷 몸살 앓고 싶다